

유연한 의사소통을 지닌 전도영입니다



전도영 1997년 (26세/만 25세) | 여

✉ tmddnjs2789@naver.com

☎ 010-4255-0541

☎ 010-4255-0541

🏠 (42832) 대구 달서구 한실로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경력 4개월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정규직

포트폴리오
<http://doyoung.dothome.co.kr/>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6.03 ~ 2022.02	졸업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 경영학 (복수전공)	-
2013.02 ~ 2016.02	졸업	오상고등학교	문과계열	-

경력 총 4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21.09 ~ 2021.12 (4개월)	글로벌코리아	국가근로	-	-
📌 담당업무 sns 카드 뉴스 제작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2.02 ~ 2022.08	사회활동	그린컴퓨터아트학원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 대구에서 반응형 웹디자인 (UI/UX) 웹퍼블리셔 (디자인 & 코딩) 양성 과정을 760시간 수료 하였습니다.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Adobe Photoshop / 상 웹 페이지, 배너, 메인, 상세페이지등 다양한 디자인을 해낼 수 있습니다.

Adobe Illustrator / 중

여러가지 툴을 사용하여 오브제와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ML5 / 상

웹 표준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CSS3 / 중

원하는 디자인을 웹 페이지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jQuery / 중

HTML 요소를 선택하고, CSS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 / 중

원하는 함수를 생성하고 제어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doyoung.dothome.co.kr/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저는 어려서부터 언어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코딩을 처음 접한 곳도 아일랜드였습니다. 저와 함께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던 인도인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코딩 화면을 본 적 없었던 저는 해커냐고 물었으나 자신을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 간단한 코드들을 보여주며 코딩을 컴퓨터의 언어로 소개해줬습니다. 후에 코딩을 공부하며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머릿속의 떠오르는 감정을 발화하기 위해 단어와 문장이 있듯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과 코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접했던 전자 기기의 환경이 이러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호기심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실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코드를 모으기 시작했고 웹 퍼블리셔를 지향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

저는 웹퍼블리셔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6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다양한 과제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제물은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당시 스타일 가이드 버튼을 처음에는 새로운 창으로 나타내는 html의 a태그로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창으로 정보가 나타나 사용자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모달로 구현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배열에 저장한 후 인덱스 값을 변수에 저장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클릭이벤트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용자를 위해서라면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가 제일 맛있어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먹어본 빵 중 맛있었던 빵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단순히 가장 맛있는 빵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카스텔라를, 당뇨병을 앓는 고객에게는 호밀이나 통밀로 된 빵을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빵을 추천해달라는 암묵적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웹퍼블리셔로 일하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저는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코딩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사용자와 함께하는 의사소통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웹페이지가 아닌 사용자를 고려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을 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기술들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대학 재학시절 다양한 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개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스스로 해낼 수 없으며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명의 팀원으로서 두 가지 의사소통에 이바지해 나가고 싶습니다.